

대회 자료집 제작을 위한 토론문은 A4 1~2매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한글)의 경우 맑은고딕체, 영문의 경우 Arial체 이용하시길 바라며 11포인트, 줄간격 160%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14pt 굵게, 저자명과 소속-11pt 굵게, 이메일 주소-Arial체 10pt, 본문-11pt)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재욱¹
한국외국어대학교^{1*}
kjiw@hufs.ac.kr^{1*}

<본문 형식>

이정희 선생님의 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신남방 지역의 최근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계 지역에서 신남방 지역이 한국어 교육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표 내용이 향후 신남방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지원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토론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청해 듣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 1장에 의하면 한국어 교육이 초중등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 등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초~고급 수준의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초중급 단계 강좌를 제공하고, 고등 교육기관에서 성인 및 기존 한국어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초~고급 단계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지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서 단절되지 않고 고등 교육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발표문의 앞뒤에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도 요청합니다.

1) 3.3장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계기가 한국 문화, 즉 한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하였는데 3.1장의 2)에서 수업 범주 중요도에서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대중 예술이 7순위를 차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일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2) 8쪽에서 '교육 인프라'와 '학습자 기기 보유'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4사분위에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속성으로 분석하였는데 2.2장의 설문 분석 내용 중에는 교육 기기가 없거나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시설, 콘텐츠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의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뒤 설문 분석 내용이 달라 보입니다.

3. 3.3장의 2) 대학 입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가 55%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과반수가 넘는 학습자가 중고등학교 강좌 혹은 온라인 수업, 사설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등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의 문제, 학습자 needs를 파악하지 못한 교육 내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학으로 학습한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분야의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점차 한국어 전반으로 학습의 범주를 넓혀가면서 학습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방법이 과반수 이상의 학습자가 선택한 방법이라면 이를 중등교육 기관 혹은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 2장 내용에서 학생 수 등 양적으로 굉장한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국가별/지역별 특징도 세부적으로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특히 눈여겨 볼 만한 특징이 있는 국가 혹은 지역, 기관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장 마지막 내용에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 내용을 보면 한국어 교육의 A부터 Z까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러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방향 및 목표, 일정, 계획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보더라도 현지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향후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현지 한국어 교수자들의 교육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에 그냥 안주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후 지원 방향은 한국어 교육의 현지 자립화에 초점을 놓고 현지 한국어 교육의 자생 능력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놓고 해당 지역 스스로 한국어 교육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의 방향이 놓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 최근 베트남 등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협의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지 교수자 분들도 자생적으로 현지에 맞는 교육 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한국어 교육 교수자 분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그분들의 노력이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교수자와 학습자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저도 그동안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구체화시킨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이 한국 정부와 한국어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신남방 지역에 관한 지원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